

정부 · 기업 적극적 협력 참여 절실

주52시간 근무도입 문제없나

<3>대안

광주·전남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주 52시간 단축근무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정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정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기업의 참여,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6일 광주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근로자 주 52시간 단축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임금하락, 공장가동 어려움 그리고 법안 사문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명근 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은

제도정착위한 근로감독 강화

대기업 원하청 이익 공유해야

“기업은 주 52시간 단축근무제 도입으로 인력난이나 생산구조상 어려움이 많다면 법안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기업입장에서 본다면 기존 주 68시간 가량을 근로자를 근무해 이윤을 냈던 것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생각한다면 고집부릴 일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센터장은 “근로시간 감독에 대해 소극적이던 정부 또한 52시간

단축근무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위반이 접수된 사업장만이라도 강한 처벌을 내린다면 52시간 단축근무제는 어느정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계 전문가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어필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현 사무처장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먼저 시행하는데 이정도 규모는 대기업 1차벤더회사에 해당한다”면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결국 인력을 더 충원해하는데 인력 채용 비용 등이 큰 부

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기업인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김 사무처장은 “그에 대한 이익을 공유해야 하청기업들의 경제력이 향상돼 인력을 더 고용할 수 있고,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해나가면 법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주 5일 근무제도 처음에는 도입이 쉽지 않았지만 사회흐름에 따라 당연시 된 것처럼 52시간 단축근무제도 시간이 흐르면 제대로 정착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 /이나라 기자

주요 음식값 1년만에 최대 10% ↑

광주 자장면 5,300원·삼계탕 1만4,400원 가장비싸

■ 소비자원 분석

서민이 즐겨 찾는 냉면과 김치찌개 등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새 냉면 가격은 10% 올라 한 그릇에 9,000원에 근접하는 등 주요 음식 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www.price.go.kr)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새 올랐고 1개만 지난해와 같았다. 가격이 내린 메뉴는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음식값은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76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962원)보다 10.1%(807원) 올라 가격 인상이 가장 컸다.

삼겹살 가격은 200g당 1만6,489원으로 지난해보다 5.6%(868원) 올라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김치찌개 백반(2.6%), 갈국수·김밥(1.8%), 비빔밥(1.4%), 삼계탕(0.8%) 순으로 많이 올랐다.

8개 조사 품목 가운데 자장면만 유일하게 4,923원으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았

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식당 음식값을 비교해 보면 삼겹살(200g 기준)이 가장 비싼 서울(1만6,489원)과 가장 싼 강원도(1만1,444원)의 가격 차가 5,045원이나 됐다.

냉면도 가장 비싼 서울(8,769원)과 가장 싼 제주(7,000원)의 가격 차가 1,769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가장 비싼 지역은 비빔밥은 대전(8,900원), 김치찌개 백반은 제주(7,125원), 자장면은 광주(5,300원), 삼계탕은 광주(1만4,400원), 갈국수는 제주(7,250원), 김밥은 대전(2,300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주요 간편 식품 10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1년 전인 지난해 5월 12일과 비교한 결과 즉석 카레(3.8%), 라면(2.1%), 탕(1.4%), 컵라면(0.2%) 등 4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컵밥(-2.7%), 즉석죽(-1.7%), 즉석 짜장(-0.4%) 등 3개 품목은 하락했고 즉석밥, 스프, 즉석국 등 3개 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이나라 기자

10대 알바자리 줄었다

15~19세 취업자 29% ↓

10대 청소년이 최근 일자리시장에서 급격하게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난 가운데 청소년이 일할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7만 6,000명(28.6%) 감소했다.

15~19세 취업자 감소율은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1982년 7월 이후 올해 4월이 가장 크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9월에는 4.1% 증가했으나 같은 해 10월 6.5% 감소로 전환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감소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에 머물렀으나 4월에 28.6%로 급격히 높아졌다.

15~19세 취업자 다수는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취업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일용 근로자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56.7%)이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이 종사하며 대다수가 임시·일용직인 점을 고려하면 15~19세 취업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며 “청소년 근로자를 당장 해고하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구두 매장서 올 여름 유행 할 스트랩 샌들을 선보이고 있다. 스트랩은 가죽끈 · 혁대 또는 끈 모양 · 띠 모양이라는 의미로서, 신발에서는 발을 고정시키기 위해 발 등 부위에 붙이는 여러 가지 밴드의 종류를 말한다.

광주 백화점, 여름상품 “잘나가네”

신세계, 여름철 특집전 다채...롯데, 스트랩 샌들 할인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나 피부·몸매관리에 집중하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백화점들도 여름 인기상품을 할인하는 등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6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에 따르면 건강하게 몸을 가꾸고 더 돋보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달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의 매출을 집계한 결과 화장품 부문이 5.2%, 스포츠·아웃도어

부문이 7.2% 신장했다.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 제품의 판매 증가와 다이어트에 돌입한 고객들의 트레이닝복 구매 증가원인이 신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에 대비해 운동과 다이어트, 피부관리와 체형보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기능성 화장품 특집”을 진행하고 있다. 체형보정에 도움을 주거나 편안하고 시원한 속옷을 소개하는 ‘여름 언더웨어 특집’도 진행 중이다. /이나라 기자

신세계가 만든 란제리 중심 편집매장 ‘엘라코니’에서는 여름을 맞아 시원한 인견소재의 속옷을 판매하고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 이벤트 참여 시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7개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머 아웃도어 특집’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올여름 트렌드로 떠오른 스트랩 샌들을 오는 10일까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할인 판매한다. /이나라 기자

이달 감자값 2만원대 “많이 내렸네”

‘수미’ 20kg 한상자 2만1,000~2만4,000원선

노지봄감자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감자값 내림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 감자 농업 관측’에서 올해 노지봄감자 생산량을 2017년보다 20.2% 증가한 38만6,507t으로 내다봤다. 평년과 견주보면 2.8% 감소한 수준이지만 연초부터 이어진 감자 공급량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자 생산량 증가는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5.6% 확대된 1만5,780ha, 단수(10a 기준) 역시 2017년 대비 13.8% 증가한 2,449kg으로 집계됐다.

농경연은 파종기 가격 강세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재배면적이 늘어난 주요인으로 꼽았다. 또 지난해보다 작황도 좋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미 감자값 내림세가 확인되고 있다. 5

월초 수미감자는 20kg들이 상품 한상자가 7만원을 웃돌았으나, 최근에는 3만원대까지 평균 경락가가 떨어졌다. 전북지역 시설봄감자가 성출하기를 맞은 데다, 노지봄감자도 생산량이 늘어 시장 반입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수미감자의 가락시장 1일 평균 반입량은 204t이었으나, 5월에는 283t으로 증가했다.

농경연은 6월 감자값 역시 내림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미감자 기준 20kg들이 상품 한상자의 평균 경락가가 2만1,000~2만4,000원 안팎으로 내다봤다.

한편 고랭지감자 역시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는 6.9%, 평년보다는 1.7% 확대된 3467ha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하가 가격이 약세였던 무와 연작피해가 심했던 배추 대신 감자를 택한 농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미애 기자

중기중앙회, 아름다운 바통터치 포상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29일까지 2018 기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포상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돼 올해 11회를 맞는 ‘아름다운 바통터치’ 포상은 존경받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오랜 기간 경영이념과 기술의 계승·발전을 통해 경쟁력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유지와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는 업력 30년 이상의 기업승계를 완료하였거나 준비(진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 최초 문구회사인 동아연필(주), ㈜미래엔 등 총 202개 업체에서 포상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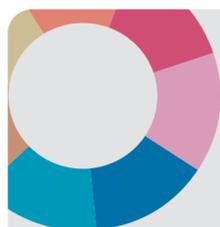
포상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및 기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신청서·증빙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5·3146 · 이메일 sally9371@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yang@dascoco.kr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설치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화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세 라 코	수정정화	R&D	나 주
	세라믹 (점토벽돌)	영업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경력직)	
		· 설계영업 경력자	
		· 설계영업 경력자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문의: 담당자 06)370-2137, recruit@dascoco.kr, 접수기한: ~ 채용시까지